

함평군 '웰니스 관광' 인프라 박차

숲·생태·정원 있는 함평천지길 스토리텔링 가미 테마공원 조성 위드 코로나 시대 체류형 관광 주력

함평군이 휴식·건강 중심의 웰니스(Wellness) 관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기존 관광지 일원의 보행 동선을 개선·정비해 '함평천지길'을 조성했다. 함평천지길은 숲으로 형성된 화양근린공원과 생태습지로 조성된 함평천생태습지, 도시공원 형태로 잘 가꾸어진 엑스포공원을 연결하는 6km의 도보길이다.

관광객들은 수산봉 숲속 둘레길, 나비다리, 낙우송길, 사색정원, 사랑정원, 신화정원, 기억정원, 장미정원, 소나무길, 등나무길 등을 도보로 둘러볼 수 있다.

함평천지길에는 꽃과 나무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곳곳의 테마공원에 조형물과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함평천지길은 사계절 내내 제철 꽃이 피는 자연 속 휴식처로 세대를 불문하고 치유와 힐링의 지역 명소로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인문학적인 연구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각 테마에 부합하는 공공지관까지 더해가고 있다.

함평천지길과 테마공원 조성으로 함평군은 연중 방문이 가능한 휴식 중심의 관광지로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화양근린공원에서 엑스포공원을 연결하는 6km의 '함평천지길'이 새로운 명소로 뜨고 있다. 사진은 엑스포공원 전경.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단발성 축제, 점령 관광에서 탈피해 머무르는 함평, 선형 관광에 주력하게 된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함평군은 나비대축제, 대한민국극향대전 등 축제를 개최하며 봄·가을철 관광 특수를 누려 왔지만, 지난 1년5개월여 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대부분 취소·축소되면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함평군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4·4·8 함평 관광 프로젝트' (바다에서 4시간, 숲에서 4시간, 함평속에서 8시간 머무르는 관광)를 내세워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 1월 함평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함평자동차극장을 개장에 호응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엑스포공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하고 있다.

또 기존 시설인 물놀이장, 엑스포공원 체험관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산봉을 오르며 스카이워크, 전망타워, 짚라인, e모빌리티 체험길 등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함평천지길을 포함해 일대의 공원과 정원을 하나의 나비정원으로 조성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 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천연염색재단 '천연염색 상품 공모전'

8월 28일까지 출품작 접수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 이하 재단)이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주제로 '천연염색 문화상품 공모전' <사진>을 연다.

16일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대한민국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주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후원하는 제16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은 오는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천연염색 분야 국내 유일·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공모전은 천연염색 디자인·육성, 발굴에 따른 체계적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작품 규격은 평면의 경우 '180cm(가로) × 240cm(세로)' 입체는 210cm × 210cm × 210cm(높이) 이다.

국내·외 이미 상품화됐거나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 타 공모전 출품작, 미풍양속에 유해되는 작품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1명, 상금 500만원), 전라남도지사상(1명, 100만원), 나주시장상(2명, 각각 100만원)을 시상한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상(5명), 장려상, 특선, 입



선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0월 8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개최되며 이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수상·입선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문의)는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왕식 재단상임이사는 "이번 공모전이 천연염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g@kwangju.co.kr

강진 쌀귀리 선식 미국 애틀랜타 시장 진출

남대문 마켓 입점 판매 시작

강진 쌀귀리를 주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진군은 남도농산에서 출시한 쌀귀리 선식이 미국 애틀랜타 남대문 마켓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다

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대문마켓은 2005년에 설립해 미국 애틀랜타 지역에 8개의 매장과 직원 550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마켓 체인이다.

지난해 남도농산은 쌀귀리를 이용해 만든 선식을 선보였다.

바쁜 일상에서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쌀귀리 선식은 뛰어난 맛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예방, 치매 예방, 피부미용 등 건강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지면서 웰빙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내수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계시장에 진출한 남도농산은 쌀귀리 선식 1200박스를 미국에 수출했다.

현재 쌀귀리 선식은 1박스에 8.99달러(약 1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 반응에 따라 수출량을 늘려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쌀귀리 선식 외에도 강진군 대표 특산물로 제조한 버섯스낵과 작두콩차가 지난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해 판매되고 있다. 새 청무살,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딸기 등 농산물 수출도 활발하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 쌀귀리로 만든 선식은 가격과 영양적인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이번 수출을 계기로 강진 농특산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성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운영

장성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개강·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7월 31일까지 주 5회 진행되며 한순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복지·의료·보건 관련 이론교육은 물론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실습 교육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격증 취득 후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실버인지를 이지도사 양성교육, 복지원에서 양성교육 등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에서 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

"이것이 연료냐"...강인규 나주시장, SRF 야적 실태 규탄

장성물류터미널 긴급 방문

"발전소 가동 즉각 멈춰야"

한난 "3중 포장, 침출수 없다"

"두 눈을 의심했다. 이것을 어떻게 연료라 할 수 있겠냐?"

강인규 나주시장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연료로 사용되는 광주권 비성형 SRF 야적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부실한 관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5일 3만4000톤에 달하는 광주 SRF 연료 더미를 쌓아놓은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에서 운영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미가동 4년여 만인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재개한 가운데 주 연료인 SRF 품질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한난은 나주 SRF 발전소에 투입하는 연료를 지난 2017년 제조 당시 첫 품질검사 실시한 후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소 11차례 내지는 최대 15차례에 달하는 의무 정기검사를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보관 장소인 장성군 물류터미널을 긴급 방문해 부실한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장을 찾은 강 시장은 "SRF 더미에서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할 가능한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난은

폐기물 수준의 SRF를 지난 3년간 품질검사 한 번 받지 않고 소각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나주시도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SRF 소각에 따른 한난의 발전소 가동 중단과 한국환경공단의 즉각적인 품질검사 실시를 촉구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한난은 지난 3년여간 법에서 정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광주 SRF를 운반해 소각하고 있다"며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주창해온 공기업의 법적, 도의적 책임에 크게 벗어난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난측은 "SRF는 이미 품질검사를 완료한 연료이고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것도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지가 흘러내린 것으로 3중으로 밀폐 포장하고 방수포를 씌웠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다"며 "나주시가 법률과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지연함에 따라 장성 야적장에 4년째 보관하면서 40억원이라는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승소함에 따라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g@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